총장-뉴스레터 - 70 (2023-11-24)
출 13 장 17 절-22 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22)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며 계속 걷고 있는(walking) 상태를 회화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런 장면은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분사형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또한 뒤나 옆에서 이스라엘의 행진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앞에서 (리프네)' 인도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한 순간도 떠나지 않고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적어도 광야를 행군하는데 있어서 만큼은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되었다.

광야 먼 길로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먼 길로 인도하셨다.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지중해 해안을 따라가는 길일 터인데, 이 길로 가면 인구가 조밀하고 방어 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을 통과하게 된다. 홍해(그 히브리어 이름은 문자적으로 '갈대바다'로 옮길 수 있다)는 14 장의 구원 기적이 일어난 장소로서 동부 나일강 삼각주의 호수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을 보면 또한 아카바 만을 가리키므로(민 21:4) 이미 먼 길을 생각했을 것이다. 에담은 숙곳에서 동쪽으로 하룻길 되는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요셉의 유골을 갖고 나옴

모세는 요셉의 머리 해골을 가지고 나왔다. 해골이라는 용어는 뼈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해골 뿐 아니라 요셉의 유골을 '모두' 가지고 나왔음을 보여 준다. 요셉이 비록 애굽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의 유골은 하나도 빠짐없이 애굽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에서 애굽은 요셉과 그 후손에게 결코 약속의 땅이 될 수 없음이 드러난다.

한편 뼈는 구약성경에서 가끔 감정의 자리를 비유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한다 (시 38:3). 이 의미를 고려한다면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았던 요셉의 체취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므로써 이룩한 그의 모든 공적을 잊지 않고 대대로 기억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백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몸소 길을 보이신다. 연기와 불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실 때 뒤따랐던 현상이다(19:18). 그 경우 화산 현상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화산들을 신들의 거소로 여겼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러한 현상과 관련시킬 수 있다면, 매임 없이 자유로이 떠도는 연기기둥과 불기둥은 그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고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특이하시다는 것을 증언한다고 할 수 있다.

본문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앞에서 영원토록 혹은 계속적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셨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본문을 직역하면 '그 백성 앞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 이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여행이 끝날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주실 것을 나타내며 (민 33:49)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영원토록 보호하신 다는 것을 말해 준다.

생각하기

22 절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 낮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나타낸다(33:14).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다. 바로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따라 미쳤을 때에도, 또 물이 떨어져서 목마름으로 신음할 때에도, 양식이 떨어져 굶주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그분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불평하며 원망하게 된다. 이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바로 그것이 이 광야같이 험준한 세상에서도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